

# 영유아 사업에 초점 ... 김정은 면담 가능성

## ■ 평양 도착 이희호 여사 3박4일 어떻게 보내나

### 첫날 평양산원 방문... 김위원장 회동땀 남북관계 물꼬 기대

5일 평양에 도착한 이희호 여사의 3박 4일 방문 일정은 영유아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여사와 수행단은 이날 오후 첫 방문 일정으로 평양산원을 방문하는 등 영유아 시설 위주로 방문 일정을 짰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이 여사와 수행단 18명은 이날 정오에 백화원초대소에 여장을 풀 후 오후 3시에 평양산원을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평양산원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때도 이 여사가 찾았던 곳이다.

1980년 7월 개원한 평양산원은 출산과 부인병을 치료하는 여성 종합병원이다. 연건평 6만㎡인 13층 건물에 6채의 부속

건물, 대형분수가 설치된 '동방식 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산원에는 해산실, 수술실, 애기실, 입원실 등 2000여개의 크고 작은 방과 1500여개의 병상이 마련돼 있다. 진료과목으로는 산과, 부인과, 갓난애기과, 내과, 비뇨기과, 구강과, 구급과, 안과, 이비인후과, 렌트렌과, 물리치료과, 실험검사과, 기능진단과 등이 있다.

이 여사는 방북 둘째 날에는 애육원(고아원)과 아동병원을 각각 방문한 뒤 셋째 날 묘향산 관광에 이어 넷째날 순안공원을 거쳐 돌아올 예정이다.

김대중 평화센터 최경환 공보실장은 "이 여사는 영유아 사업, 모자보건 사업에

관심이 많다"며 영유아 시설 위주로 방문 일정을 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여사가 평양 방문 때 전달할 선물로 털목도리와 의료·의약품 등을 준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평양산원 이외 이 여사가 방문할 애육원과 아동병원은 평양 내 어떤 시설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애육원은 유치원 나이의 고아를 돌보는 시설로, 북측은 작년 10월 완공 직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지시찰한 평양 육아원·애육원으로 안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육아원·애육원에는 보육실, 운동실, 지능놀이실, 치료실 등 250여 개의 방이 있고 야외·실내 놀이장과 공원, 여러 가지 유희·오락시설과 비품이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병원은 2013년 말에 완공된 평양

내 육유아동병원이 방문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제1위원장은 2013년 10월 완공을 앞둔 육유아동병원 건설현장을 시찰한 바 있다. 육유아동병원은 연면적 3만2800여㎡, 6층 규모로, 최신식 의료설비들이 갖춰진 각종 치료실과 처치실, 수술실, 수시개입 입원실은 물론 어린이 환자들을 위한 교실과 놀이장, 휴식장을 갖추고 있다고 당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이 여사의 방북 기간 김정은 제1위원장과 면담할지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여사 방북을 추진한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김 제1위원장이 작년 말 친서로 초청했기 때문에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이 이 여사와 면담을 하게 되면 대남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면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경환기자 cki@kwangju.co.kr ·연합뉴스

##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꾸어야 한다

### 신형철 칼럼



본지 5월 7일자에 게재된 첫 번째 칼럼에서 나는 문예창작학과 선생임을 한껏 내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시(詩)는 매끈한 해답을 쥐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왠지 나를 주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보이지 않는 눈이 빛난다는 느낌. 그것이 몸통의 다른 부분들, 즉 근육질 가슴과 미묘한 곡선의 허리까지 빛나게 한다. 이제 시인은 이 토르소가 매력적인 이유를 이렇게 납득한다. "토르소에는 너를 바라보지 않는 부분이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즉, 온 몸이 눈이라는 것.

이 토르소 앞에만 서면 무언가 압도당하고 마는 것은 눈이 없어서 온 몸으로 관객을 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는 이 상상력은 확실히 심오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마지막 문장이 아직 남아 있다. 이 토르소에게는 입이 없으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데, 릴케에게는 그 '침묵의 말'이 이렇게 귀에 들렸던 모양이다. "너는 너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시인을 따라 루브르의 토르소를 상상하며 그곳까지 시를 읽어나가 보면 이 마지막 구절이 축 처져 어깨를 내리친다. 왜인가.

첫째, 바꾸라 했으니 'A에서 B로'라는 지점이 있을 법도 한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 당신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둘째, 언제 이 구절을 읽든 우리는 똑같은 명령을 다시 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바꾸려고 노력했는가? 계속 더 바뀌어야 한다.' 요컨대 아폴론의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몸통은, 바로 우리의 삶이 언제 러지 않고서야 그 가슴의 품만함이 너를 눈부시게 하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허리를 조용히 돌리며 보내는 하나의 미소가 생명을 가져다주던 그 중심을 향해 흐르지도 않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이 둘은, 두 어깨는 투명한 상인방 같지만 밑은 흥취하

주지하다시피 '아폴로(Apollo)'는 그리스 신화의 신 '아폴론'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적은 것이다. 태양과 이성과 예언의 신으로, 그리스문명을 상징하는 신이기도 하다. 또 '토르소(torso)'란 머리와 사지(四肢)가 없이 몸통만 있는 조각을 가리킨다. 파손되었거나 만들다 만 작품으로 여겨진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 자체로 완성된 작품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시는 '아폴론의 토르소'를 보고 느낀 바를 적은 것이다. 이 시를 쓸 당시 릴케는 파리에 체류 중이었으니 아마도 루브르에 소장돼 있는 그 토르소를 본 것이리라. 편의상 행과 연의 구분을 없애고 줄글로 옮겨 적는다.

"거기 두 개의 눈망울이 무르익고 있던 아폴로의 엄청난 머리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토르소는 지금도 촛대처럼 불타고 있다. 거기에는 그의 사물을 보는 눈이 틀어박힌 채, 그대로 남아 빛나고 있다. 그 러지 않고서야 그 가슴의 품만함이 너를 눈부시게 하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허리를 조용히 돌리며 보내는 하나의 미소가 생명을 가져다주던 그 중심을 향해 흐르지도 않으리라. 그렇지 않다면 이 둘은, 두 어깨는 투명한 상인방 같지만 밑은 흥취하

<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 노동 등 4대 개혁 필요성 국민에 직접 호소

### 박대통령 오늘 대국민 담화 광복절 특사 언급 없을 듯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25일)을 앞두고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후반 기 국정 구상을 직접 밝힌다.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담화의 핵심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속도전'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노동개혁을 포함해 개혁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개혁 추진의 배경과 필요성, 방향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개혁에 국민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화는 개혁 과제 중 당면 현안인 노동개혁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개혁은 과거 고도 성장기 때 만들어진

관련 제도를 현재에 맞게 바꿔 경제 제도의 틀을 만든다는 점과 함께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의 성패는 노사정위원회 복원에 달렸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메시지도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노동시장 2중 구조를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내년부터 청년이 연장되는 것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 등도 노동개혁 차원에서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공 개혁 ▲금융 개혁 ▲교육 개혁 등에 대해서도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 담화의 초점이 개혁에 맞춰졌다는 점에서 마르스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광복절 특사 관련 언급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경원선 복원 기공식서 침묵에 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5일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에서 열린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기공식에서 침묵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중섭 장관 휴가중 신안 방문

휴가 중인 정중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5일 오후 신안 낙도 파출소 등 현장을 찾았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헬기 편으로 목포경찰서 소속 신안 안좌파출소를 방문, 근무 중인 경찰관을 격려하고 치안 현안을 살폈다.

이어 정 장관은 흑산파출소와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 주민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정 장관은 오는 2017년 완공 예



정인 새천년대표(압해읍~암태면)와 연륙·연도교 건설로 대변화가 예상되는 도서 치안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고 피서지 치안 확보 등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관할 자치단체장이 현장에 나오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www.plubber.co.kr

# 세계가 인정한 육상트랙 플러버 롤시트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 육상트랙 시공**

- 5년만의 남자 육상 100m 한국 신기록(10초 16)
- 대회 사상 최초 100m 남자육상 9초대 진입(9초 97)

**국산 롤시트 최초 IAAF Class1 획득**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뛰겠습니다**






육상트랙 / 다목적구장 / 산책로 등

친환경 녹색기술기업  
탄성 포장 전문기업

**Plubber (주)플러버**

본사 : 525-882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백야길 88-70  
Tel : 070-7769-8614 Fax : (061)323-5206